

# 中 사드 보복 중소기업 체감경기 '하락세'

### 무역협회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업체 지원에 총력 기울여야"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경기와 중국의 국내 사드 배치 보복에 따른 매출타격 우려감이 커지면서 두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던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150곳을 대상으로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90.5로 전월 대비 1%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 내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5월 지수가 하락한 것은 내수경기 회복이 더딘 데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음료

(101.4→117.8), 기타제품(89.1→94.9) 등 10개 업종에서 상승했지만 금속가공제품(93.1→82.4),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94.3→77.0) 등 12개 업종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건설업(91.6→92.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5.6→100.0) 등 5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운수업(91.5→86.5), 교육서비스업(86.6→82.5) 등 5개 업종은 하락, 도매 및 소매업(89.5) 업종은 전월과 동일했다.

향목별로는 내수전망(90.6→89.5), 수출전망(94.0→88.4), 고용수준전망(96.2→95.6)에서 하락, 영업이익전망(86.5→87.3), 자금사정전망(83.5→84.6)에서 올랐다.

이달 업황실적 중소기업 건강도지수는 85.7로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제조업은 전월대비 0.4% 상승한 87.1, 비제조업은 건설업이 전월대비 3.4% 상승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1.2% 하락했다.

올해 들어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중국 정부는 대(對) 한국 압박 전선을 문화에서 경제, 관광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미 한국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차단하고 한류 드라마의 방영을 금지하는 등 한한령(限韓令)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 식품, 화장품 등이 반덤핑 규제와 비관세 징벌

등으로 인해 통관이 늦어지거나 수입이 불허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개소한 '대중(對中) 무역애로 신고센터'에는 60개 기업이 6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의도적인 통관지연(23건)이나 계약취소(15건)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불매운동(14건), 대금결제 연기(4건) 등의 유형도 있었다.

무렵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업체 지원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은 시장경제 원리보다 정부 방침에 좌우되는 중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재용 기자

#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나라별 식품기준 설정 적극 나선다

### 농진청, 플로리카미드 등 8성분 규제 강화

농촌진흥청은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등록농약 중 수출대상국에는 등록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에 대해 수입국 식품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은 대만 통관과정 중 안전성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플로리카미드(Florimicamid) 등 배추 등록농약 8성분으로 검출량이 국내기준의 1/5~1/100에 불과한 안전한 수준임에도 대만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규제를 받는 성분들이다.

배추의 경우 국내 수출 물량의 90% 이상이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대만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LS) 시행에 따른 안전성 위반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됐다.

PLS(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대만은 2015년 10월 5일부터 한국산 배추에 대해 100%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대만 수출확대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또한 대만 내 안전성 위반문제로 인해 국내산 배추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8% 감소했다.

특히 수출되는 신선배추는 대만으로 92% 수출되며, 대만 배추 수입액의 30.8%를 점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간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고추 등 15작물 70농약의 수입국 식품기준을 반영시킴으로써 일본 수출 쿏고추 및 고춧가루, 대만수출사과 등의 전수검사를 해제시키는 등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와 무역장애요

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농촌진흥청 진용덕 농업연구관은 "그간의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 대만, 홍콩수출 토마토와 파프리카, 들깨잎 등 통관에 문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IT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나라의 식품기준 변경 시 농약안전사용지침에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지자체와 연계해 수출단계별 품목별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성 위반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기업인력애로센터로 구인난 해결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 인력난 해소 일조

인천에서 정읍 지방농공단지로 이전한 업체 J는 지방이전에 따른 생산직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에 공문을 보내 인력 해소 방안을 요청했다.

마침 기업인력애로센터를 맡고 있는 담당 팀장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연락해 원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J사는 지방 이전에 따른 인력난에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진공공에서 인력난을 해결해줘 고마움을 표했다.

종업원들의 장기 근무를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S사는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 전북 도내 특성화고에 3차 협약을 맺고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지난 20일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애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기업인력애로센터란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직무역량 향상, 맞춤형 인력 양성, 근무환경개선, 인력제도개선, 정보제공 등 One-Stop 지원체계를 말한다.

구인구직 매칭은 중소기업이 신청하거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실행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인력수요를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 등 인력양성기관과 실시간 연계를 통해 이뤄진다.

김형수 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으로 발생한 인력 누수를 학교-중소기업-중진공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063-210-9926)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best7@stc.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전북농협, 축산농가 맞춤형 교육·컨설팅 실시

농협 전북본부와 임실축협,남원축협은 지난 27일 각각 축협 회의실 및 인근농장에서 조합원 70여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으로 축산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경영·사양·질병·번식·개량·환경·축사시설·계통관매체 등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산기술을 보급해 지속가능

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임실축협 및 남원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실시된 컨설팅에서는 전문가의 심층강의와 농가 질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참석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축산물 수입증가, 사료비 상승,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빈번한 발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축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전북은행, JB카드 오매가7 이벤트 실시

황금연휴에 나들이를 계획 중인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여행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는 행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21일까지 고객들의 나들이 계획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JB카드 오매가7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매가7'은 '오월, 매력적인 가정의 달 7% 캐시백'의 줄임말로, JB카드 개인 고객들은 홀수일에 외식·숙박·대형마트·온라인 쇼핑·편의점·영화관·놀이공원 가맹점에서 누

적 3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이용액의 7%를 고객별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여행사·해외가맹점·면세점 등 여행 관련 업종 이용시 최대 7만원까지 캐시백 해주는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고객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내 신청 고객에 한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콜센터(☎1588-4477) 및 홈페이지(www.jbban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전주김제완주축협, 장학증서 수여식 실시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지난 29일 참예우 명품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과 자녀들이 함께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조합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 53명에게 총 5,000여 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이들이 자리에서 김창수조합장은 "미래의 역량을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김제완주축협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7,5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원이 참여한 헌혈봉사활동, 농촌사랑 기금전달등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나눔 문화에 앞장서 신뢰받는 축협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인재용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